

4·9 총선 이슈

1 신당·민주당 텃밭 싸움만 할 건가

“호남 고립 벗어나려면 뭉쳐라”

18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의 통합 여부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호남 정치권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이후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며 결국 정권 창출에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의 분열은 목과할 수 없다는 민심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지역민들은 “신당과 민주당이 각기 따로 갈 경우 총선구도는 결국 ‘호남권’에 머무를 것”이라며 “호남정치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의 정통성과 통합신당의 세(勢)를 묶는다면 그 영향이 수도권에도 파급돼 ‘호남+수도권’이라는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적인 바람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 광주일보가 광주·전

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합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1.8%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한자릿수 이하인 9%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 12.1%의

대통합 지역민심 똑바로 읽어야

공천 ‘밥그릇 싸움’ 땀 회생 불능

한나라당에도 뒤지는 참담한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대통합민주당이나 민주당을 호남의 정치적 미래를 견인할 진정한 대안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대통합민주당과 민주당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이뤄내라는 민심의 메시지로도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심의 근거에는 현재의 분열된 범여권 구도로는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참패한다면 호

창당론으로 대통합의 불을 지폈다. 여기에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광주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정치권에선 “두 당의 강점을 한데 모으고 인물 중심의 혁신적인 공천을 한다면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에 따라 해볼만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민들은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민주당과 민주당에 한나라당에 맞설 대안 정당을 건설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호남 정치권의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외면하고 공천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남 물김 수매

9일 오전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 물김 수매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물김 수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이 타르 유입을 우려해 조기 수확하는 경우도 있어 수확량과 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타르 덮칠라” 김 서둘러 수확

해남·완도 어민들

30% 손실도 감수

전남 서해 해역 타르 유입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타르 확산을 우려한 상당수 양식 어민들이 손실을 감안한 채 어린 김을 채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은 10cm 정도 자라야 채취를 하지만 ‘타르 공포’에 시달리

다 못한 해남·완도 등 남해안 일부 어민들이 7~8cm 가량의 어린 김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8면> 이로 인해 김 수확량이 30% 가량 줄어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혹시나 있을 지 모를 타르 오염에 대비해 조기 수확에 따른 손실분도 감수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타르 확산의 고비인 ‘사리 채취’를 하지만 ‘타르 공포’에 시달리

일대에서 새벽 물이 빠지면 타르 덩어리가 발견돼 전남도와 방재당국이 긴장했으나 새롭게 유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전남도는 큰사리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타르 추가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별 고사 대학 자율로

대교협·입학처장 회의...대학별 입학차 커 진통 예상

대학입시 업무를 총괄하게 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대학 입학처장들이 9일 회의를 갖고 대학별 고사를 대학 자율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2009학년도 입시전형을 수립·발표키로 하는 한편, 전반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6개 지역별 입학처장 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교협 공식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교협 차기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정부가 제시한 논술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현재 치러지고 있는 논술 및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

사는 대학별로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현실에 따른 입학차 역시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은 ▲수학·과학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 제시문의 번역·해석을 요구하는 문제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 기준이 사라질 경우 대학들은 외국어로 수학의 풀이과정을 묻는거나, 인문계열에서 과학적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제 등을 출제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날 모임에 참가했던 한국의

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내년 수시모집부터 본고사 형식으로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고사 부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많았다. 전남대 문승주 학생지원처장은 “대입 자율화도 대학의 특성에 맞게 여러 전형을 포함하는 것은 좋지만 공교육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방식의 본고사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어 대입 자율화가 무작정 반가울 수만은 없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조선대 설현영 교무연구처장은 “자율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쁜 독자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과 다른 대학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흑피옥은 1만4천년 전 유물”

서울대 탄소연대측정

광주일보 보도(2007년 9월1일자 1·4면, 19일자 15면, 20일자 15면, 10월 6일자 4면)로 관심이 촉발된 ‘흑피옥(黑皮玉)’ 조각상의 제작연대가 무려 1만4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와 이를 조각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문명들보다 훨씬 전의 초고대문명 유물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흑피옥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정건재 전남과학대 동북아문화연구소장은 9일 “중국 내몽고 지역에서 출토된 흑피옥 조각상의 도료를 채취해

서울대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이하 공동기기원)에 탄소연대측정을 의뢰한 결과 구석기 후기인 1만4천300년 전(± 6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동기기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정소장이 양(羊)모양의 흑피옥 조각상 표면에서 검은색 도료를 긁어내 보내온 9.4mg의 물질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에 따라 분석,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지난 7일 분석결과서를 보내왔다.

정소장은 유기물이 포함된 도료의 연대가 1만4천여년 전의 것으로 나온 것은 바로 1만4천여년전 당시 조각상



제작자들이 옥위에 도료를 칠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도료가 옥(玉) 표면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현대에 누군가가 칠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일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Snow Crush Ice

LANEIGE